

담양청소년지도위원회, 수북중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양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서생현)는 지난 16일 담양수북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소개됐으며 영상 감상과 질의응답 시간, 도서상품권 등 선물을 전달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대, 광덕고 축제서 댄스공연 등 봉사활동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사회봉사단은 지난 17일 광덕고등학교(교장 박종모) 축제 현장에서 '빛나는 너를 응원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음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입학홍보단은 돌림판을 통한 기념품 증정과 라이터 인형 탈 봉사활동으로 학업에 지친 고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중제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장 국립광주과학관서 22일 과학강연



우중제(사진)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센터장이 오는 22일 오후 7시에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대중 과학강연을 진행한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024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에너지 세상' 연계 특별강연으로 '환경을 지키는 전기가 배터리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산구급식관리센터 '식품안전의 날' 시장 표창 수상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문새롬 팀장과 박도이 팀원이 지난 14일 광주 시청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영양관리 수준 향상 및 소비자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혜경 백송 변호사, 초록우산 아이리더에 후원금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는 지난 14일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김혜경 변호사가 초록우산 인재양성지원사업 '아이리더'에 200만 원을 후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혜경 변호사는 "어려운 속에서도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사연을 보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인재양성지원사업인 '아이리더'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남부대 교양교육원 목지수 대표 초청 23일 브랜드 특강



남부대학교(총장 조준범) 교양교육원(원장 이미아)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남부대학교 협동관 강당에서 '목지수<사진> 씨이트브랜드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로컬브랜드의 시대'를 열린다.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목 대표의 사생활의 소소한 삶을 담아 도시를 디자인하고 브랜드화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and Time Slot.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Program Name. Lists EBS1 programs such as 'Manqukgeonmuk' and 'Hangeulgeonmuk'.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1일(음 4월 14일 乙酉)

☎ 010-9790-8237

36년생 기어들이면 시비 수에 휘말린다. 48년생 평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0년생 기준에 있어 왔던 것이 나무가 용이 하겠다. 72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